

■ “법정근로시간단축의 효과”(성재민 책임연구원)

- 2004년 조사된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람들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2003년 50.0시간에서 2004년 46.1시간으로 3.9시간 줄어들었음.
- 휴일·휴가 제도의 변경, 비정규직의 활용, 노동강도 강화 등의 방식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기업 내에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.
-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람들의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는 아니지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.
-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람들은 남은 시간을 자기개발, 여행/관광/나들이, 휴식 등의 활동에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의 단축이 생활방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문의처 :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책임연구원

Tel: 782-0141(236) E-mail : seongjm@kli.re.kr

*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(<http://www.kli.re.kr>)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법정근로시간단축의 효과

담당자	성재민 책임연구원
전화	02)782-0141(236)

- 법정근로시간단축이 2004년 7월 1일부터 10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체, 공공부문, 은행 등에서 실시되었으나, 아직까지 이로 인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밝혀진 바 없었음
 - 한국노동연구원의 제7차 『한국노동패널조사』의 「근로시간과 여가」 설문을 이용해 효과를 분석

- 법정근로시간단축이 실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존재했으나, 분석결과 정규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람들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이 2003년 50.0시간에서 2004년 46.1시간으로 평균 3.9시간 줄어들었음.
 - 이전부터 40시간 정도 일하던 사람들의 근로시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, 이보다 길게 일했을수록 실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음.
 - 반면 정규 근로시간이 이전과 동일하게 44시간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경우 2003년과 2004년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이 각각 51.4시간, 51.6시간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

- 근로시간이 단축된 기업들 중 일부는 휴일, 휴가, 근무시간제도 변경을 통해 실근로시간 감소의 충격을 흡수하였음.
 - ※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응답한 근로자 중 33.6%가 휴일, 휴가, 근무시간제도가 변경되었다고 응답
 - 비정규직의 활용, 노동강도 강화 등의 방식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

흡수하기 위해 기업 내에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.

※ 시간제 근로자 중 1000인 이상 사업체 근무자 비중만 2003년 대비 2004년 증가했고 나머지는 감소

※ 임시, 일용직 비중도 다른 규모에 비해 1000인 이상이 가장 많은 2.4% 증가

○ 근로자들의 직장생활에 미친 영향을 보면,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노동강도, 근무시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40%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,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.

○ 실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.

- 남은 시간을 일차적으로 자기개발에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25.4%, 여행/관광/나들이 17.4%, 수면 등 휴식 16.5%, 운동/스포츠 13.3% 순이었음.

- 또한,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, 근로시간 변화가 없었던 사람들의 생활만족도가 소폭 하락한 데 반해, 근로시간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의 생활만족도는 소폭 개선되었음.